

# 전북대-완도금일수협, 수산업 발전 '맞손'

### 금일수협, 전북대에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해조류 연구 지원·특산품 홍보·교직원 할인판매 등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완도 금일수협(조합장 서광재)과 어업인 소득 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19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한 분부 주요 보직자들과 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및 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수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해조류 연구 지원과, 완도금일수협 특산품 홍보 및 교직원 할인판매 등을 협약했다.

또한 전북대는 완도 금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금일수협은 전북대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에 완도 금일수협은 김동원 총장에게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서광재 조합장은 "전북대와 수산업 발전과 연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대학교가 완도 금일수협과 어업인 소득 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19일 협약을 체결했다.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긴밀히 교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기금이 전북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완도 금일수협이 보

유한 우수한 수산자원과 우리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완도군이 대한민국 수산 자원 생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양 기관 보유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연결시켜 그 어느 기관과의 협력사업보다도 뜨거운 혁신 에너지가 샘솟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시민감사관협의회 개최

### 상반기 실시감사 조치결과 설명·하반기 실시감사 대상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9일 분청 8층 감사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회 시민감사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지난해 9월 위촉된 제4기 시민감사관 7명과 감사담당공무원 4명 등 11명이 참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19년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시감사 의견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하반기 실시감사 대상사업 선정 등이 다뤄졌다.

시민감사관들은 상반기 실시감사와 관련해 대한학교(공립형)에 관한 사항에서는 진로교육지원 체계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업중단자

중 부적응과 자퇴의 기타 항목에 대한 분석 및 세부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비영리법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과 제11항에서 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단체의 민간보조자 부담 비율을 현재 30%에서 10%이하로 완화, 학교(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증대 지도감독 강화 및 컨설팅 필요성 등도 제기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을 향후 계획에 반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실시감사 대상사업도 선정했다. 주요 감사 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외부통제 시스템 강화로 정복교육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중·고등 교사 수업 전문성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수업진담 프로젝트'를 통해 중·고등학교 교실 수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부터 진행한 수업진담 프로젝트는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의 진지하고 담담한 대화모임으로,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수업관련 대화형, 실습형, 참여형 분과별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참여 교사들의 실질적 수업전문성이 성장하도록 돕는 교사 자발적인 수업성장 지원 프로젝트다. 현재 교과별 참여교사는 14개 교과 220명이며 분과별로 팀을 구성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위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해커톤(hackathon) 활동을 월 1회씩 실시해왔다.

도교육청은 20일 7층 학습지원실에서 수업진담 교과별 분과 대표교사

28명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진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2학기 활동을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함께 만들고 실천하기 ▲교사 공동 사고를 통한 수업디자인과 평가 설계 ▲학생의 배움을 촉진하고 참학력을 키우는 수업 실천 ▲교사 개인의 교과교육과정 실천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집단지성과 공동사고를 기반으로 한 학습공동체 정착으로 교사 수업 전문성을 신장할 것"이라며 "학생 중심 수업-과정중심 평가의 학교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학생 스스로 읽고 쓰고 말하며 생각이 자라나는 수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

###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은 19일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도내 약 20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협

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 및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련한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공동체 발전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조덕현 단장은 지역공동체 발전 및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전북체육회,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본격 추진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 체력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전주 신성초와 군산 대야초, 익산 부송중, 장계중, 고창 아산초, 남원 한빛중 등 9개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8개 학교에서는 건강체력프로그램이 1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건강체력프로그램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한 피

트니스 중심으로 꾸며진다.

자유학기제는 스포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기종목(박달리볼·츄크볼)을 재구성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0교시, 방과후 등 학교 일정에 맞게 진행되며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총 24회(주2회) 이뤄질 예정이다.

강습이 모두 종료되면 해당 학교에 체육용품이 기증된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청소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많은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 결과발표회가 지난 17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독립운동사, 가슴에 새겼다

### 도교육청, 국외 역사체험학교 결과발표회 가져

"일본의 식민통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의 유훈비, 어엿한 우리 역사인 발해의 옛 성터 등을 보면서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아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지였던 연해주지방에 직접 가 안중근 의사, 최재형 선생 등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역사적 사건들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19년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 결과발표회가 지난 17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2019년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29명과 지도교사 6명·독립운동사 전공 교수 1명 등 총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날 27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진행했다. 이날 결과발표회는 국외 역사체험 후 분임별 탐구보고서 및 개인별 소감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6개조로 나눠 각각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항일 투쟁 △연해주 지역 항일 독립운동사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과정과 의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과 변천 등을 주제로 분임별 보고서를 작성,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수를 인솔했던 도교육청 유재환 장학사는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사 교육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